

인 권 주 일
대림 제 2 주 일

기도서 213면 (B해)
제1독서: 이 사 40, 1-5, 9-11
제2독서: II 베드 3, 8-14
복 음: 마 르 1, 1-8

숲 정 이

발행 권 주교전주교구
편집 집 흥 보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0042·0043

□ 강 료



「복치는 소년」

김 동 준 신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널리 불리워지는 「복치는 소년」이란 노래의 본디의 가사말은 그 내용이 이렇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모두 나가 경배하고 준비한 갖가지 예물을 드린다. 화려한 꽃과 촛불이 장관을 이룬다. 가난한 소년은 차마 나갈 수가 없다. 남루한 옷에 어떤 예물도 준비할 수가 없다. 소년의 마음엔 비가 내리고 작은 몸은 더욱 작아진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복을 쟁겨 들고 뛰어나간다. 주위엔 아랑곳 없이 신명나게 복을 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유에 누운 새로운 왕은 그 많은 눈망울 중에서 자신에게 눈길을 맞추고 웃으셨다는 내용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진 것이다. 만민의 장소는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시려 오신다. 구유간은 천지간에 가장 누추한 곳 중에 하나다. 아무도 빼앗지 않는 자리다. 평화가 시작되는 장소다.

지금은 대림절이다.

누가 누구에게 오신다는 것인가? 누가 오시는 데 감히 앉아서 맞겠다는 것인가?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대림절은 나에게 은총의 계절이 되고 있는가?

오늘의 성서는 「부의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벌판에 길을 뒤희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을 넓혀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이번 성탄에도 주님은 예사스러운 모습으로 조용히 오신다. 그분을 알아보는 척도는 곧 신앙의 척도다.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분은 「그날에」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마태오 7장 23절)고 말씀하실 것이다.

길은 마음과 뜻이 소통되는 통로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유통의 통로다. 교회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정치도 경제도 우정과 사랑도 길을 닦지 않고는 가 능하지 않다. 그리고 「같이 떠난 노중(路中)」에서 만나 처야 한다.

「나는 길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유는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오 3장 17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도 붙잡히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 혼신으로 복을 치는 일이 지금의 나의 일 이어야 한다.

<서학동성당 주임신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유엔(UN)은 세계를 「청소년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어디에서나 심각하기 그지 없다. 사실 이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몰고 온 선물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청소년임이 틀림없을진대 우리 모두는 이를 가벼이 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세상 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교회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뛰어 넘는 과도기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고민은 그들이 배운 이상과 부조리한 사회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엄청난 거리감때문에 맞보는 심리적인 갈등이다. 또한, 아직은 미숙하기에 자기 자신을 정립하지 못한 데다가 어지러운 주위 환경들이 그들을 짓누를 때, 그들이 빠질 수 있는 길은 원하게 열려 있다. 청소년 범죄들—폭력·성적인 탈선·약물 복용·노상 강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바로 어른들이다. 그들이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가정이나, 젊음을 할 수 있는 장(場)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서 진리와 정의의 료를 찾을 수 있는가? 잘못된 정치·경제·사회현실과 교육제도는 젊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소리치는 돌들」이 되게 하고 있다. 어른들은 오늘의 젊은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고 겸손하게 살펴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자. 교구차원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본당에서는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인격적 존중과 사랑을 보이자.

숲 정 이 산 책



활금알을 넣고 가네!

적극 사회참여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요약)

—제3회 인권주일에 즈음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강생의 신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양보할 수 없는 것임을 가장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표지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일을 으뜸가는 사명으로 삼아온 것도 여기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불법적인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 사체에 항의하고, 또 그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간 기본권의 핵심이라 할 생존권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생존권에 대한 교회의 관심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의 권리마저도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공유산, 안락사의 인정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입법이 검토되는가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현상, 집단적 살상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그림자는 인간의 생명을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공적인 낙태, 공해,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 등을 반 생명현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나아가 사람은 누구나 생존권과 신체의 보전 및 건강을 누릴 권리와 인간품위에 알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향유할 권리, 즉 의식주, 생계수단, 그밖에 생활보장이 불가결한 것들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과 생존권

경제활동은 인간의 본성적 필요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발활동의 시발점이며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개발이 국민으로 하여금 빈곤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지표에만 구애된 나머지 국민경제의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계층과 계층, 산업과 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상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지나치게 물량적인 경제개발에의 집착과 그에 따른 외형적 성장목표의 추구는 수출입국을 위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명분으로 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정책, 그리고 그것을 밀받침할 저농산물 가격정책의 유지를 골간으로 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임금인상 억제정책, 노동운동의 봉쇄, 쌀 수매가의 동결에 가까운 소독인상, 외국산 농축산물의 과다한 도입 등 (3면 하단에 계속)



해 질 녘

장 화 자(크리스티나)

우리
모두의 빛으로 내리던
따스한 만추의 햇살도
저만치 기울고
땅거미 찾아드는 거리에 서서
나그네 몸짓으로
싸늘한 고독을 끌어 모은다.

너와 내가
스치고 지나간
생존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 생활의 그루터기.

성시를 이루던 노점도
하나, 둘 불을 밝히고
귀가길을 챙기며 좌판을 거두는
아낙의 손등에 꽃히는
희미한 저녁해.

하루를 돌아봄은
이적지 살아온
삶의 표적인데
마음은 문밖에서 서성인 채
패이는 연ભ,

지는 해는
내일을 위한
또 하나의 긴 용트림을 잠재우고,
시작과 끝에서
반복되는 분주한 걸음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천년도 채우지 못하는 생
오늘도 나그네 되어
해 질 녘
땅빈 사색의 거리에서
헛쓸
풍요의 노래를 읊조리며
토닥이는 손길, 손길
목마름은 끝이 없어라.

<문물동본당>

84학년도 겨울방학 미술 특강

(유치반·국교반)

※ 1학년 그림일기 지도 ※ 학원버스 운행

판인 **해동이 미술 교육 학원**

효자동 우진아파트 입구 (75) 4374

원장 김 순 주(베로니카)

디스크, 각종 신경계질환 내분비질환등

(단식중 미사 있음, 교우 대환영)

요가와 묵상과 단식

요가수련 : 오전 6시30분, 오전 10시, 오후 6시30분

단식모집 : 매월 둘째주에 특별모집

원장 최프란체스카(미숙) 김재 전화 4050

□ 다음 주일은 자선의 날

다음 주일(대림 3주일)은 주교단이 정한 자선의 날이다. 연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제정된 자선의 날에 각 본당에서는 2차 헌금을 통해서, 혹은 주일헌금에 자선의 지향을 두어 헌금토록 하고 그 일부를 본당 재량대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성탄 구유 카드 안내

가톨릭 매스컴위원회가 제작한 성탄 구유 카드(가톨릭 신문 12월 2일자 8면 참조)를 교구 홍보국에서 판매하게 된다.

각 성당과 수도원에 만들어졌던 성탄 구유를 사진작가가 사진으로 찍어 만들어진 이 카드는 성탄카드로 뿐만 아니라 성탄 구유를 만드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가 격 : 10장 1세트—2,500원
주문처 : 교구청 홍보국

(2면에서 계속) 으로 그 골격이 더욱 경직적으로 체질화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계층의 생존권의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효과를 위한 무리한 도시개발은 사실상의 이농민인 도시빈민이 다시 도시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심각한 국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보장

외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체 국민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로서의 노동자, 농민들은 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그 결실에의 참여에는 소외되거나, 오히려 성장 자체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제를 위시하여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징표를 보여 줄 것을 온 교회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에서 연유하는 농민의 생존권문제는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립적이며 균형있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에서 그리고 농협을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재벌에 대한 금융상의 정책적 통제와 원중의 10분의1 만이라도 농어촌지역에 배려된다면, 농어민의 생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기발전의 권리

정치 및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므로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옹호하고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협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생성, 발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민중속에 쌓이고 응고될 한을 민주적으로 수렴, 확산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요된 침묵이나, 분명히 실재하는 항의와 간청의 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민중의 한을 안으로 축적케하여 더 큰 사회불안을 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와 농민 및 도시의 빈민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운동에 대한 법적, 현실적 제약과 탄압이 없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맺는 말

우리 교회의 인권문제, 특히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누구를 비판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 공동체 성원 전체의 화해와 일치를 촉구하는 간곡한 호소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땅에서의 천주교의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평등사상의 전파와 확립이라는 역동적 사건이었음에 유의하면서, 보편적 교회의 진리를 터득하고 수용한 순교선열들의 뜻을 오늘날의 이땅에 다시 펴고자 하는 바입니다.

1984. 12. 9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담당주교 : 윤 공 회 대주교
회 장 : 유 현 석

요심이(592) 김병오

3차해금에 대한소감은? 유신정권때 목에 힘준 사람은 풀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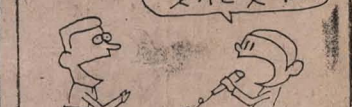
반대한 똑똑한사람은 안풀어주니 이런법이...



소감을 간단히 한 말씀...



한마디로 웃기는짓이요!



남·여 사원모집

모집부문 : 영업직, 판매직
00명

서류 : 이력서(사진), 주민등록등본 각1통

기간 : 12월 12일한 수시접수

대우 : 기본급 및 수당

※주부 부업자 환영

동진특수화학 전복영업소

전주 태평동 2가 53-19
(해성학교 앞)

☎74-9689

群山 임정골한방의원
진료과목 : 침구과, 부인과, 내과, 외과 (백)

원장 임 스테파노 (의성)
특설 : 물리치료실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2-2403 (국도극장 뒤)

상성 병원, 김갑국, 경향서, 조화당, 임정골한방의원, 성안고개, 국도극장

전문취급점 (수입원)
국제보청기

전주점 : 전주시 경원동 3가 39-6 (대학병원입구 바다다방앞)
☎2-9894
광주점 : 광주시 동구 서석1동 52-13(전남공고앞 오거리)
☎27-9940, 9970
주 정 프랍치스코 정 세레나

(4) **순 정 이**



1. 사제평의회: 10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사목방문: 11일-장계, 12일-고창, 15일-평천도단체
3. 고 김성진 신부 1주기 추도미사: 13일 오전 11시, 장소-중앙성당
4. 교구단위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효자동 유치원, 지도-박중신 신부
5. 제3지구 울드레아: 9일 오후 2시, 장소-팔마성당
6. 중·고 지도자 연합회 창립총회: 1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센타 회의실, 회비-2천원
7. 마니피캣 합창단 정기총회: 17일 오후 5시 30분, 장소-센타 내 교육관
(※ 단원모집-매주 월 오후 5시30분)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섭
사도 회장 김인협

1. 판공 면담일정: 11일-진북·서노, 12일-인후, 13일-금암·태평, 14일-고사·경원·중노, 15일-기타·학생, 시간-오전 10시~12시·오후 7시~9시
 2. 판공성사 일정: 14·15·18·19일(오전 10시~12시·오후 7시~9시), 공소판공-16일 오후 3시
 3. 꾸리아: 금일 오후 2시 4. 병자봉성체: 18일
 5. 성모회: 16일 공식미사 후
 6. 성탄반 영세식: 23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992,197원 교무금: 2,035,500원

(노송동)

신부 ⑩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⑦032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분당 판공일정: 10일-남노송동, 11일-중노1가동, 12일-중노2가 1~5구역, 13일-중노2가 6~10구역, 14일-인후동 1~6구역, 15일 오후 2시부터 중·고생들, 16일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 일반인들 성사시간-오전 9시~12시까지·오후 2시~6시
2.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3. 신녀도 사업계획서 제출: 오늘까지 제출 바람
4. 아파트 성당에 성화상영: 16일 공식미사 후
5. 아파트 성모회 월례회: 13일 오전 11시
6. 아파트 구역장 모임: 11일 오후 3시
7. 차주의 전례담당: 제1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양요열
사무(72)6259 사도 회장 김상안

1. 오늘의 행사모임: ①사도회 정기총회-저녁 7시30분(유치원) 전위원·단체대표·구역장·공소회장 참석 ②L·M꾸리아-오후 2시(유치원) ③유아세례-오후 3시 미사후
 2. 금주 판공성사 안내: 11~12일-송천동, 13~14일-팔복동·기타, 15일-전당리공소(4시 방문·7시 성사·9시 미사), 16일-미산리공소(4시 방문·7시 성사·9시 미사)
 3. 어머니성가대 참가연습: 금주부터 오전 10시
 4. 성탄영세자 종합교리: 18일~21일 밤 7시30분 성탄영세자 면접: 12일·14일 오후 2시-가정주부·조인, 밤 7시30분-직장인
 5. 각단체 성탄경축행사(성가경연·장기자랑) 준비바람
 6. 금주 분당청소: 청년연합회(15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553,470원 교무금: 1,383,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병자봉성체: 18일 오전 9시부터
2. 영세자 집중교리: 17일~22일 오전 10시~11시
3. 영세식: 22일 오후 2시30분
4. 성탄 성가연습: 17일~22일 오후 2시~3시
5. 성탄 판공성사: 11일-다가동, 12일-중앙동·고사동·완산동·화산동, 13일-태평동, 14일-진북동·기타 오전9시~12시·오후 2시~5시·미사후, 15일-학생·직장인(순님신부님 성사주집)
6.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7. 온풍기 성금: 김경조-10만원, 익명-5만원, 박마리아-5천원, 임금례·이금란-각 1만원, 누계-1,262,000원
8. 축! 영명: 13일, 김누시아 수녀님
9.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모친 차주: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10.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김성원
- 지난주 봉헌금: 129,110원 교무금: 486,710원

(서학동)

신부 ⑩8307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⑩2276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2. 성전 보수공사 협금: 2만원-익명 2분, 5천원-이양님·김옥노·최금주·김유복·이순자, 1만원-박상열, 누계-8,008,411원
 3. 판공일자: 12일~13일-12·11·7반, 14일·15일-9·6·4반, 18일-10·5·3반, 20일-2반, 21일-1반, 시간-저녁미사 전·후
 4. 감사합니다: 성모회, 대림절꽃매-1만5천원
 5. 차주전례: 해설-김광수·오정희 독서-①박형식 ②장기호, 기도-치명자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318,820원 교무금: 861,900원

(숲정이)

전화 ⑦3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⑩9567 사도 회장 김수결

1. 사도회 회의: 16일 공식미사 후(신심단체, 구역장)
 2. 누갈다 부녀회: 12일 어머니 미사후
 3. 사목방문: 11일-대평동, 12일-동양아파트, 14일-기타
 4. 자선헌금: 다음주 2차헌금 있음
 5. 판공일정: 시간 오후 2시~5시, 7시~9시, 18일-금암1·2구역·진북1동, 84년 영세자-오후7시 19일-서신1~5구역·어은골, 20일-진북2동 1~5구역·태평동, 21일-진북2동 6~10구역·동양아파트 22일-중·고·대학생
 6.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동현·고영숙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강 삼·정송자
- 지난주 봉헌금: 255,560원 교무금: 525,600원

(전동)

신부 ⑩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⑩3222 보좌 신부 정양호
수녀 ⑩8347 사도 회장 김범오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교미정음: 다음주
 3. 추계 판공일정: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11일-전동, 12일-동교동·서교동, 13일-동완산동·서완산동, 14일-풍납동, 18일-남노송동, 19일-중앙동·경원동·다가동, 20일-기타동, 시간 업무 바람
 4. 글로리아성가대 성탄 성가연습중: 매일 저녁미사 후
 5. 200주년 기념사업 협금: 10만원-오공천, 5만원-박기원·김용수, 3만원-이주영, 2만원-이정순·신복수 1만원-정영조, 7천원-유윤호, 5천원-이형섭·서복님
 6.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5~6세 남·녀어린이, 수시접수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정식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서정호,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흠
- 지난주 봉헌금: 812,280원 교무금: 975,000원

(효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구역 판공성사: 오전 10시, 11일-에그리아아파트, 12일-우진아파트, 13일-두현리, 18일-광진·서부 거성, 19일-주공2단지, 20일-상개리
 2. 초청신부 고해성사: 16일 오전 9시~12시30분, 오후 7시~9시
 3. 사목회의: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글라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48,330원 교무금: 451,000원